

이흥재의 세상만사



사람이 있어야 미움도 있다. 극도의 증오는 동전의 양면처럼 뜨거운 애정의 다른 한 표현일 수 있다. 사랑도 미움도 모두 관심의 증거다. 일찍이 프랑스의 여성 화가 마리 로랑생(1883~1956)도 이를 깨달았던 모양이다. ‘잊혀진 여인’이라는 시가 이를 말해 준다. 과연 어떤 여자가 가장 불쌍한 것일까? 병든 여자, 버림받은 여자, 쫓겨난 여자, 죽은 여자? 다 아니다. 그녀에 의하면 아들보다 더 가여운 여인이 있으니 바로 잊혀진 여자다.

그래서일까. 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 기를 쓴다. 오죽하면 “정치를 하려거든 본인 부고(訃告)만 빼고 그 무엇이든 신문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가.

한데 호남에서 새누리당 사람들은 ‘잊혀진 존재’다. 그들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기대가 없으니 비판도 없다. 신문 칼럼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행태’를 바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들이 매번 칼럼의 소재가 돼야 마땅할 것이지만 이들은

야당에 비해 훨씬 ‘매’를 덜 맞는다. 다 아는,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뻔한 얘기는 재미가 없다. 재미없는 얘기를 쓰면 독자들 외면한다.

그럼에도(신문 끊는다는 말씀만은 제발 하지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는 몇 마디 좀 해야겠다. 왜냐?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 비상시국이란 ‘전쟁·사변·재해 때위로 국가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한 시국’을 말한다. 한데 대부분의 국민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무슨 비상시국이라는 반응인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지진으로 아파트가 흔들리긴 했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비상시국을 태평성대로 작각하고 있다면 모두들 안보 불감증이나 안전 불감증 환자들일 것이다. 가여운 국민들.

고마우신 우리들의 대통령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비상시국임을 때때로 깨우쳐 주시는 자애로우신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비상시국에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無知)를 깨우쳐 주셨다. 이로써 제2의 일제재단(정두환이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든 재단)이라는 의심을 받는 미르재단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일거에 몽개 버림으로써 위대한 영도력을 보여 주신 것이다.(한데 미

이 ‘비상시국’에 정말 애쓰십니다

르재단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수상하긴 하다. ‘미르’는 용(龍)의 옛말이요 용은 임금(대통령)의 상징이니 말이다.)

대통령께서는 또한 국회가 일개 농림장관을 해임했을 때도 비상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철없는 국회’를 나무라셨다. 그럼에도 말귀가 어두운 이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듯하다. 본인 직함에 ‘비상’을 달고 있음에도 ‘비상시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솔직히 대통령님께서는 굵아굵아마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시며 비상시국을 잘도 넘기셨다”고 비아냥거렸으니, 대통령이 전해 들으셨다면 턱지를 치고 분노하실 일이다.

어찌 됐든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도 장차관들에게 골프 치러며 대통령께서 하해(河海)와 같은 넓은 아량을 베푸신 점이다. 골프를 치면 ‘내수진작’(內需振作 : 국내 소비를 일으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결국 경제를 살려 배고픈 국민을 먹여 살리려는 높으신 분이 배어 있는 말씀이라.

하긴 13억 인민을 통치하는 중국 국가 주석이 ‘음수사원’(飲水思源) 운운하면서 당치 않은 훈계를 늘어놓을 때도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전혀 굴하지 않고 “5천만 국민의 안위가 어깨에 걸려 밤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러니 이 비상시국에 백성들을 ‘어엿바 너거시는’(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그 넓은 오지랖을 어찌 우리러 칭송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박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는 ‘신의’(信義)요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는 ‘배신’(背信)이라는 것쯤이야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 일찍이 당신은 옛 고사(故事)에 나오는 미생(尾生)에 비유되기도 했으니,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애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가 오는데도 빠져나오지 않고 기다리다 결국은 익사하고 말았다는 바로 그 사람.

단식 농성 아닌 ‘단식 총성’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당신께서 청와대에 임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처럼 원칙과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으로 각인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불순분자들은 대통령의 원칙과 신의를 고집과 야집이라 폄하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미생에 대한 평가는 아주 오랜 옛날에도 사람에 따라 엇갈리긴 했다. 저 유명한 도둑인 도척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자 찾아간 공자(孔子)가 신의의 가치를 말하면서 미생을 들먹거리자, 도척은 콧방귀를 끼고 이렇게 반박했다는 것 아닌가. “훗! 그런 놈은 족발 들고 빌어먹는 거지보다 못한 놈이지 뭐요. 쓸데없는 명분에만 매달려 소중한 목숨을 소홀히 하는 놈이 어떻게 인생의 진미를 알겠소?”

명분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대통’(大通)을 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불통(不통)의 극치’라는 세간의 혹평이 있는데 역시 불순한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한편으로 마냥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곁에 누구보다 더 믿는 ‘자식’이 있기 때문이다.(자식처럼 믿는다는 의미이니 오해는 마시고) 다름 아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지금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다. 여당 대표의 단식은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단식 농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단식 총성’이 더 맞을 것 같긴 하다. 물론 이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모이는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과거 야당 총재들이나 하던 단식을 과감하게 집권당 대표가 추켜들었으니 그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사고’가 단연 돋보인다. 평소 ‘신의’를 중시하시며 ‘창조’를 부르짖는 대통령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밥까지 굶고 있는 이 ‘의리의 돌쇠’를 보면서 어찌 흐뭇한 미소를 머금지 않으실까.

부디 그 미소 잃지 마시고, 기왕 이렇게 된 것 절대 물러서지 마시라. 간언(諫言)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절대 듣지 마시라. 어차피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려면 ‘비선(秘線)과 측근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말 따위는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라. 미르재단 같은 것도 있으니 일단 한번 믿어 보시고, 부디 건강만 챙기시라. 만세, 만세, 우리 대통령 만만세.

〈주필〉

단군사상 설파 나철 선생 일대기 소설로

보성 출신 정찬주 ‘단군의 아들’ 펴내...개천절 의미 되새겨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단군사상을 설파하고 실천했던 보성 출신 홍암 나철(1863~1916)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개천절은 나철 선생이 단군의 개국 입도(나라를 열고 도를 세움)를 기리고 상해임시정부가 국경일로 정한 데서 시작됐다. 이는 국권을 상실한 시기에 항일 투사와 지식인들이 단군조선을 민족의 역사 시작으로

보고 몽팠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보성 출신 정찬주 작가가 펴낸 ‘단군의 아들’(작가정신)은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단군사상을 토대로 한 대중교를 중광(重光·다시 밝힘)한 나철 선생의 이야기다. 한마디로 소설은 나철 선생의 일대기이자 식민사관에 의해 묻혀간 단군을 되살려낸 역사교양소설이다.

올해 첫 주부터 보성군 홈페이지에 연재



된 이 소설은 국치일인 8월 29일에 완료됐다. 정 작가는 “치욕적인 한일합병을 잊지 말자고 만든 국치일에 최중회 원고를 마감했다는 생각으로 머리끝이 쭈뼛했다”며 “문득 신재호 선생이 남긴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촉비와 같은 말씀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포스코,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살아있는 세포 실시간 관찰
IT·신약·신소재 개발 등 활용
미국·일본 이어 세계 3번째

포스코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으로 신물질·신소재 분석 기술 확보와 IT·반도체·의료분야 등 미래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시설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계 3번째로,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햇빛의 100경(京)배로 강렬한 엑스레이 레이저 섬광을 낼 수 있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이다.

특히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파장이 짧고 매우 밝은 빛을 만들어 물질의 미세구조·현상을 펨토초(1000조분의 1초)·나노미터(10억분의 1m)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포스코, 포스텍(총장 김도연)은 29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텍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포항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준공식을 열었다.

영문 약칭이 ‘PAL-XFEL’인 이 시설의 공사기간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국비 4038억원, 지방비 260억원 등 총 사업비 4298억원이 투입됐다.

시설 운영자들은 올 4월 이 가속기의 시운전을 개시했으며, 6월에는 엑스레이 레

소설은 나철 선생이 살았던 한일합병 전후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단군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어떠한 표상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소설은 명 성왕후가 낭인들에게 살해당하고 10년 후 나철 선생이 일본의 한일협약안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한다는 내용이 줄거린다.

정 작가는 “우리가 나철 선생을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부르는 까닭은 김교헌, 이회영, 김좌진, 신채호 선생 등 항일 투사와 지식인들 상당수가 대중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라며 “나철 선생 서거 100주년이 되는 올해, 그리고 개천절에 선생의 기념관에 바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저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시설은 올해 12월 국내외 연구자가 참여하는 데모 실험을 거쳐 내년부터 이용자를 받을 예정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빠르게 가속시켜 만든 빛으로 아주 작은 물질을 관찰하는 거대하고 정교한 ‘현미경’이다.

포스코는 최근 생명공학, 정정에너지, 나노, 반도체 등의 대한민국 첨단 미래 산업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설립에 집중해 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알립니다

지진 피해 주민 돕기 성금 모금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지진 피해 주민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6000세대 이상이 주택과 지붕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

◇모금기간=10월 31일까지
◇계좌번호=국민은행 556090-78-002505
기업은행 001-001350-93-289
농협은행 106906-64-013491
신한은행 5620-28-88600396
우리는행 262-751361-18-435
하나은행 116-923266-46837

◇예금주=재해구호협회
◇인터넷 기부=www.relief.or.kr
◇휴대폰 문자 기부=#0095(한 건당 2000원)
◇ARS 기부=060-701-1004(한 통화 2000원)
◇성금 모금 안내=1544-9595



한국신문협회 · 光州日報社

사람을 찾습니다

• 162cm의 아연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심장계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책,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끈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래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정도 제대로 못주셨을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침체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 회사창립 20주년 감사 사은행사로 본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황칠삼채여주진액 1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0평 ▶ 감정가 2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 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 (2003년식) ▶ 감정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망 좋음 ▶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 ▶ 감정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 좋음 ▶ 감정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 좋음 ▶ 감정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정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현역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